

어두운 곳을 밝혀주는 빛과 같은 존재

# 손으로 보는 세상





# 감사한 분들께 마음을 전하고 싶을 때는 점자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감사합니다’는 점자로 이렇게 표기합니다.



## 점 자 일 램 표



읽기형 ① ④  
② ⑤  
③ ⑥

자음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원소리
	⠠	⠠	⠠	⠠	⠠	⠠	⠠	⠠	⠠	⠠	⠠	⠠	⠠	⠠	⠠
받침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	⠠	⠠	⠠	⠠	⠠	⠠	⠠	⠠	⠠	⠠	⠠	⠠	⠠	
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	⠠	⠠	⠠	⠠	⠠	⠠	⠠	⠠	⠠	⠠	⠠	⠠	⠠	⠠
약자	가	나	다	마	바	사	자	카	타	파	하	약	언	얼	연
	⠠	⠠	⠠	⠠	⠠	⠠	⠠	⠠	⠠	⠠	⠠	⠠	⠠	⠠	⠠
약어	그래서	그러나	그러면	그러므로	그런데	그리고	그리하여								
	⠠	⠠	⠠	⠠	⠠	⠠	⠠	⠠	⠠	⠠	⠠	⠠	⠠	⠠	⠠
숫자	수표	1	2	3	4	5	6	7	8	9	0				
	⠠	⠠	⠠	⠠	⠠	⠠	⠠	⠠	⠠	⠠	⠠	⠠	⠠	⠠	⠠
문장 부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영어	a	b	c	d	e	f	g	h	i	j	k	l	m	n	
	⠠	⠠	⠠	⠠	⠠	⠠	⠠	⠠	⠠	⠠	⠠	⠠	⠠	⠠	⠠
	o	p	q	r	s	t	u	v	w	x	y	z	영어시작	끝	
	⠠	⠠	⠠	⠠	⠠	⠠	⠠	⠠	⠠	⠠	⠠	⠠	⠠	⠠	⠠

‘나, 다, 마, 바, 자, 카, 타, 파, 하’ 약자 뒤에 모음이 이어질 때는 약자를 사용하지 않는다.

ㅅ, ㅈ, ㅊ, ㅌ, ㅍ 다음에 약자 영 이 올때는 ‘영’으로 바뀐다.

# C O N T E N T S



**점자로 말해요 | 감사합니다 ..... 02**

**테마기획 | 대학입학을 위한 대학수학능력시험,  
암산으로 치를 수 있으십니까? ..... 04**

**우리연합회에서는 |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 웹 접근성 인증기관 선정,  
다양한 세미나 개최 ..... 06**

**뉴스앨범 |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축제 한마당 &  
모범노원구민표창 시상식 ..... 08**

**함께 사는 이야기 | 금각사를 찾아서(서해웅 시각장애1급) ..... 09**

**인터뷰 | 시각장애인 보행지도사 양성교육 담당자 이상훈 팀장님 ..... 10**

**흰 지팡이 발자취 | 시각장애인과 점복업, 그 역사를 찾아서 ..... 12**

**포커스 | 시각장애인을 위한 '착한 목소리 프로젝트 시즌3!' ..... 14**

**2014 02**  
vol. 163



손으로보는세상 제20권 2호 통권 163호

발행일 2014년 2월 15일 발행처 서울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주소 우)139-856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우암에스타워 403호 전화 02-950-0109 팩스 02-934-8069 이메일 kbuhongbo@hanmail.net

홈페이지 www.nowonblind.or.kr 한글도메인 '시각장애인.kr',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kr' 디자인·제작 디코리아(02-542-5064)



## 대학입학을 위한 대학수학능력시험, 암산으로 치를 수 있으십니까?

세 자릿수의 단순 곱셈을 암산으로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시험을 암산으로 봐야한다면 어떨까요? 수능시험을 암산으로 치를 수밖에 없는 수험생이 있습니다. 바로 시각장애학생들입니다.

현재 수능시험에서 시각장애학생들에게 주어지는 편의는 전맹 시각장애학생에게 점자문제지, 1, 3, 4교시 음성평가자료, 1.7배의 시험시간이며, 저시력 시각장애학생에게 확대문제지, 1.5배의 시험 시간입니다.

전맹 시각장애학생이 수학영역의 시험을 치를 때는 계산을 하기위해 점자지를 끼우고 다시 문제를 읽기 위해 점자지를 빼는 과정을 반복해야 합니다. 이는 비시각장애학생들이 문제를 읽으면서 바로 메모를 하고 계산을 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많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학생들은 점자지를 끼고 빼는 과정이 불편해서 암산으로 문제를 풀게 되는 것입니다.

시각장애수험생들의 어려움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국어영역의 지문이 긴 경우 한 지문이 점자시험지 여섯 페이지에 달합니다. 문제를 풀다가도 앞에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다시 읽어 보려면 여섯 페이지를 손으로 일일이 만져서 원하는 부분이 나올 때까지 찾아야 합니다.

현재 공무원공개채용시험, 교원임용시험, 사법시험에서는 시각장애수험생이 컴퓨터로 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컴퓨터는 컴퓨터의 문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스크린리더 프로그램이 장착된 것을 말합니다. 즉, 컴퓨터를 통해 시험문제를 귀로 들으며 시험을 치르는 것이죠. 하지만 수능시험에서는 시각장애학생들이 컴퓨터로 시험을 치를 수 없습니다.

현재 많은 시각장애학생들이 다양한 보조기기를 통해 학습해왔지만 대학입학에서 매우 중요한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보조기기를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시각장애학생들의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 12월 31일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로써 시각장애 학생을 위한 교육책임자의 정당한 편의제공 수단 마련이 의무화되었으며 국립중앙도서관이 생산·배포하는 도서자료 등에 점자, 음성변환용 코드 보급을 명시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시각장애학생들이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 기대해봅니다.



▲ 출처: 뉴스1





# 한국웹접근성평가 센터가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가 미래창조과학부가 지정한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여러 심사 끝에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을 선정하였는데요. 이에 한국웹접근성 평가센터를 포함한 네 곳이 선정되었습니다.

2013년 4월부터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법인, 의료기관, 체육시설 등의 웹 사이트는 웹 접근성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데요. 이처럼 장애인을 위해서 웹 접근성을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이를 인정하기 위해 품질인증기관을 선정한 것입니다.

웹 접근성은 장애인, 고령자 등의 인터넷 취약계층이 웹사이트 정보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하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웹 접근성 품질인증은 웹 접근성 지침을 준수한 사이트에 품질 인증마크를 부여해 인증하는 것입니다.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인터넷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국웹접근성 평가센터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시각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세미나가 개최되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포럼과 점자개발 종합사업 결과보고 공청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스크린리더(컴퓨터 내용이 음성으로 출력되는 프로그램)가 개발되고 스마트폰에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기술이 탑재되었지만 비장애인과 비교해봤을 때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시각장애인 정보 접근성 향상 포럼”이 지난 1월 20일, 21일 양일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개최되었는데, 이번 포럼은 총 다섯 개의 주제로 구성되었으며 주제는 ‘정보화 교육’, ‘포털 사이트’, ‘소프트웨어’, ‘미디어’, ‘접근성’입니다.

또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주관하고 국립국어원이 주최하는 “2013년도 점자 개발 종합사업 결과보고 공청회”가 지난 1월 28일 이룸센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수학·과학·컴퓨터 점역교정사 양성을 위한 검정교재 개발’, ‘국악 점자 제·개정을 위한 기초연구’, ‘유니코드 점자·음성처리 실용화 연구’에 대한 결과보고가 진행되었습니다. 점자관련 업무를 하는 많은 분들이 자리를 참석하여 적극적으로 질의를 하시는 등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입력봉사자,  
노원구청 모범 자원봉사자 표창**

노원구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축제 한마당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해 입력봉사를 해주신 손혜숙님이 노원구청 모범 자원봉사자 표창을 받으셨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자도서를 만들려면 책의 전문을 입력해야 하는 봉사자가 필요한데요, 손혜숙님이 오랜 시간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해 입력봉사를 해주신 결과 이번 표창을 받으셨습니다.



**검정고시 봉사자,  
모범노원구민표창 시상식에서 표창**

시각장애인의 검정고시를 도와주신 자원봉사자 이진옥님, 전건임님께서 모범노원구민 표창을 수상하셨습니다. 두 분은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검정고시, 평생교육에 참가한 시각장애인들이 공부하는데 큰 도움을 주셔서 표창을 받으셨습니다.





# 금각사를 찾아서

서해웅(시각장애1급 / 서울시 은평구)

“서른이 되기 전에 꼭 한번 나가보고 싶었어” 교토로 가는 급행열차 안에서 문득 친구에게 이런 말을 던졌다. 이제 곧 서른이 된다. 여행은 고사하고 아직 비행기도 제대로 한번 타 보지 못했다. 혼자 어디로 훌쩍 떠나고 싶을 때마다 ‘내가 혼자서 어딜 가?’라는 물음이 밀물처럼 차올랐다.

시각장애인이 여행을 가면 보지도 못할 텐데 푸념하며 주변에 여행가는 시각장애인 친구들을 비난한 적이 있었다. 그러면서 사실 나도 정말 해외로 나가 보고 싶었다. 해외여행은 말이 통하지 않으니 걸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나에게 설명해야 하는데 그것부터가 쉽지 않은 일이라 생각했다. 나에게 해외여행은 벅처럼 느껴졌다.

1년 동안 유학생활을 했던 친구는 일본어에 능숙했다. 이 친구와 함께 간다면 마음이 놓일 것 같았다. 용기를 내어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했다. 실은 결정한 후에도 마음이 뒤숭숭했다. 그래서 얼른 비행기 표를 예약해 버렸다.

처음에는 도쿄로 가기로 했다가 다시금 교토로 여행지를 바꾸었다. 도쿄야 서울이랑 별로 다를 게 없고 교토가 좀 더 일본다운 곳이라는 친구의 말에 교토로 방향을 잡았다. 교토는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경주와 비슷한 곳이다. 경주에 절과 탑이 많듯이 교토에는 유명한 금각사가 있었다.

교토역에 내려 숙소까지 다시 버스를 타고 들어갔다. 우리가 오후 6시 정도에 도착했는데 교토에 있는 절은 보통 6시가 되면 문을 닫는다고 했다. 얼른 숙소에 짐을 풀고 근처에 있는 ‘키아즈미데라’라는 절로 올라갔다. 시간이 너무 늦어서 내일을 기약하며 저벽저벽 언덕을 내려오던 친구가 갑자기 멈춰섰다.

친구는 내 몸을 잡고 방향을 잡아 주었다. “좀 더 멀리 아주 멀리 봐야 해” 친구가 말했다. 친구가 가리킨 것을 보는 순간 아주 낮게 탄성이 나왔다. 그 순간 나는 두 번 감사했다. 내 눈은 시력이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 눈이 나빠졌다는 것을 하루 이틀 사이에 느낄 수 없지만 서서히 그러나 분명히 시력

을 잃어가고 있다. 그럼에도 오늘 이 아름다운 석양을 볼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다. 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보여 준 대자연에 감사했다.

둘째 날 우리는 서둘러 아침을 먹고 숙소를 나왔다. 말 그대로 자유여행이었다. 버스에 탔다. 자리에 앉아 한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차 시동이 꺼졌다. 일본에서는 공회전 시간이 길 때 시동을 끄는 것을 친구가 알려줬다. 모든 것이 다 처음이었다. 여행이란 이런 맛에 오는 것이다. 모든 것이 새롭고 호기심도 왕성해진다. 나는 친구가 귀찮을 정도로 이것저것 묻고 저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 거냐는 말을 수없이 반복했다. 내가 평생을 살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씩은 나 스스로 길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여행은 더욱 뜻 깊다. 출국할 때는 친구와 함께 떠났지만 돌아올 때는 나 혼자 입국했다. 일부러 친구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비행기 표를 예매할 때 내가 친구에게 이런 말을 했었다. “엔젠가는 나 혼자서 나가보고 싶어. 그래서 이번에는 나 혼자 돌아와 볼 거야” 돌아오는 길은 조금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승무원이 잘 도와주어 어렵지 않게 입국을 할 수 있었다. 서울로 오는 공항철도에 탔을 때 비로소 긴장이 풀리고 나는 잠깐 잠이 들었다.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교육하는 보행지도사, 알고 계신가요?

## 시각장애인 보행지도사 양성교육을 담당하시는 이상훈 팀장님을 만나보았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은 혼자 어떻게 길을 걸을 수 있을까요? 흰 지팡이, 점자블록 등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돕는 생활용품, 편의시설 등도 있지만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전문적으로 지도해주는 '시각장애인 보행지도사'가 있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이 독립보행을 할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보행지도사는 시각장애인이 혼자 길을 보행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직업인데요. 오늘은 시각장애인 보행지도사를 양성하기 위한 '시각장애인 보행지도사 양성교육' 프로그램을 맡고 계신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이상훈 재활교육 팀장님을 만나보았습니다.



**Q** 시각장애인 보행지도사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시각장애인 보행지도사는 시각의 손상으로 이동에 제약을 갖는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보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는 2000년부터 보행지도사 양성교육을 실시하여 지금까지 296명의 보행지도사를 양성하였는데요, 이렇게 시각장애인 보행지도사가 되신 분들은 현재 시각장애인 단체, 시설, 맹학교, 복지관 등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Q** 시각장애인 보행지도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시각장애인 보행지도사가 되려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실시하는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자격검정 시험을 합격하셔야 시각장애인 보행지도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양성교육과정은 4주 동안 총 140시간에 걸쳐 이뤄집니다.

**Q** 그럼 시각장애인 보행지도사 양성교육에 참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혹시 특정 대상이 있나요?

**A** 매년 1월에 보행지도사 양성교육에 관한 공지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됩니다. 공지 내용을 확인하시고 참가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신청 대상은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20세 이상의 장애, 비장애인인 모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단, 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6급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시각장애인 보행지도사 양성교육이 어떻게 실시되는지 궁금합니다.

**A** 양성교육은 집체교육 형식으로 1차, 2차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교육은 총 4주 동안 이뤄지며 1차 교육은 보통 2월에 실시되며 2차 교육은 7월~8월에 실시됩니다. 보행지도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필수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행이론, 보행실습, 시각장애인의 이해, 법률 및 정책, 안과학, 재활상담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Q** 시각장애인 보행지도사 양성교육을 실시하시면서 보람을 느끼셨거나 인상 깊으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A** 교육 일정이 겨울과 여름에 편성되어 있어 야외에서 보행실습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연령대가 높으신 교육생의 경우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안대를 착용하고 흰 지팡이에 의지해 긴 시간동안 보행하여 목적지에 도착해서 성취감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검정시험의 합격 유무를 떠나 모든 분들께 자 격증을 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Q** 손으로 보는 세상 독자 분들께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A** 시각장애인 보행지도사는 시각장애인의 재활에 큰 역할을 담당하는 중요한 직업이지만 아직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보행지도사라는 자격이 더욱 체계화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연합회 직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독자 분들께서도 시각장애인 보행지도사 자격이 발전하는 모습을 지켜봐주시고 본 교육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시각장애인과 점복업, 그 역사를 찾아서

시각장애인이 점복업을 시작한 시기는 고려시대 전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고려시대부터 시각장애인이 점복업에 종사하면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려시대 초기부터 과거제도를 통해 점복인을 선발하면서 점복인의 등용이 제도화되었는데요. 이에 시각장애인들은 점복업에 진출하여 자립생활을 누리게 되었으며 시각장애인 승려 역시 점복업에 종사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고려시대 말기에는 일부 시각장애인이 점복업으로 종5품이나 정4품에 속하는 검교직 벼슬을 받아 관민으로부터 존경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성계가 위화도회군으로 정권을 잡은 후, 정도전은 성리학적 이념에 바탕을 둔 왕도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점복업에 종사하는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광대, 기생, 승려 등을 천인으로 전락시켰습니다. 이에 점을 치는 시각장애인의 신분은 천인이 되고 점복에 관한 학문인 음양학은 천시 받았습니





하지만 점복업은 시각장애인의 직업으로 크게 발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음양학이 관학으로 제도화 되어 위로는 왕부터 아래로는 민중들에 이르기까지 점복이 생활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려시대에 시각장애인의 전업으로 발전한 점복업은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도 그대로 계승되었습니다. 조선시대에 국가가 시각장애인에게 점복 교육을 실시하거나 점복 관리를 등용하였던 것을 보면 조선 시대 점복업이 시각장애인의 전업이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조선 전기 세종대왕은 음양학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인재를 양성하는데 힘을 기울였습니다. 집현전을 설치하여 학자들을 양성했던 것과 같이 세종대왕은 나이 어리고 총명한 시각장애인 10명을 선발하고 사흘마다 한 번씩 학습하도록 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을 사흘에 한 번씩 공부하도록 한 것은 당시 시각장애인은 모든 내용을 외워서 공부했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들이 하루 동안 배운 내용을 외우고 연습하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들을 서운관에 소속시키고 대궐 내에 건물을 마련하여 시각장애학생들이 음양학을 배우도록 했는데요. 더불어 나라에서 시각장애학생들의 곁에 간수와 노비를 두어 학생들의 교육을 돕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세종대왕이 시각장애인에게 음양학을 배우도록 한 것은 세계 최초의 맹학교인 파리맹 학교가 설립 된 1785년보다 약 340년이 앞선 것입니다. 게다가 파리맹학교는 사립학교인데 비하여 조선시대의 서운관은 왕이 시각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국가 기관에서 직접 실시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한국 시각장애인의 역사(임안수, 2010년)」,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발췌



🎤 당신의 목소리를 기부해주세요

# 시각장애인을 위한 '착한 도서관 프로젝트 시즌3!'

지난 1월 11일, 12일 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해 착한 도서관 프로젝트 시즌3를 진행했습니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서는 글로벌 캠페인인 'Seeing is Believing'의 일환으로 착한 도서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올해 벌써 시즌3를 맞았습니다.

이번 착한 도서관 프로젝트 시즌3 행사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최종 목소리 기부자 530여명을 선발하기 위해 '착한 도서관 오디션'이 실시되었는데요, 오디션에서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오랜 기간 목소리 재능기부를 하신 전문 성우 57분이 심사를 맡아주셨습니다.





## 당신의 목소리를 기부해주세요.

목소리를 기부하는 것이 생소하게 여겨지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목소리를 어떻게 기부하는 것일까요? 책, 그림, 영상매체 등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책, 화면해설을 녹음하는 것으로 목소리를 기부할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해 책을 낭독하는 것을 녹음할 수도 있고 그림, 영상매체 등의 화면해설을 녹음하여 시각장애인의 이해를 도울 수도 있는 것이죠.

2011년부터 2012년에 걸쳐 진행된 착한 도서관 프로젝트 시즌1에서는 선정된 100여명의 목소리 기부자와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임직원 400명의 재능기부가 더해져 15,000부의 오디오북과 점자책을 제작하였으며 이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를 통해 전국의 시각장애인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또한 2012년부터 2013년에 실시된 착한 도서관 프로젝트 시즌2에서는 시각장애인에게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화면해설영화 오디오 제작이 추가 진행되었습니다. 목소리 기부자와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임직원의 목소리 기부로 애니메이션 '소중한 날의 꿈' 화면해설영화와 총 61권의 오디오북이 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즌 1, 2의 성공적인 진행에 이어 이번 행사인 시즌3가 실시되었으며 이번 시즌 3에서는 국내최초로 세계명화 화면해설을 녹음하게 되었습니다.

## 그렇다면 오디오션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목소리를 기부하기 위해 참가한 참가자들 중 최종 목소리 기부자를 선정하기 위해 총 3차에 걸친 오디오션이 진행되었습니다. 1차 그룹 오디오션, 2차 심화 오디오션, 3차 리허설 코칭으로 진행되어 목소리 기부자를 선발했는데요.

심사를 통과한 최종 목소리 기부자 530여 명은 전문 성우의 지도를 거친 후에 국내 최초로 진행된 세계명화 화면해설을 녹음해주셨습니다. 특히 이번에 녹음된 세계명화 화면해설은 기존의 일반 오디오가이드에서 나오는 설명과 달리 그림의 구도, 색감, 구성 등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 시각장애인이 세계명화 화면해설을 듣는 것만으로 명화를 상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이번 착한 도서관 프로젝트 시즌3에서는 이번 목소리 기부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봉사 활동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의 홍보부스가 설치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장애인 참가자들이 시각장애체험을 할 수 있는 코너가 진행되었는데요.

바로 참가자들이 안대를 끼고 흰 지팡이에 의지해서 보행을 하는 체험입니다. 흰 지팡이 보행으로 혼자 점자블록을 보행하고 안내자의 도움으로 모랫길, 자갈길 등을 걸으면서 시각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습니다.



# 2013년도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 정산내역



세 입			금 액
관	항	목	금 액
계			6,073,331
보조금	보조금		1,522,960
		보조금	1,522,960
후원금	후원금		343,581
		지정비지정후원금	94,585
		공모사협후원금	248,996
전입금	전입금	전입금	749,847
사업수입	사업수입	사업수입	3,042,476
잡수입	잡수입	잡수입	1,543
전년도이월금	전년도이월금	전년도이월금	412,924

세 출			금 액
관	항	목	금 액
계			6,073,331
사무비			1,736,110
		인건비	1,524,178
		업무추진비	1,674
		운영비	210,258
재산조성비			54,099
		시설비	54,099
사업비	사업비	사업비	3,712,389
과년도지출	과년도지출	과년도지출	3,740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
이월금	이월금	이월금	566,993

### 후원금

세 입		금 액
항 목	금 액	금 액
계	138,143,480	
지정후원금	40,300,071	
비지정후원금	54,284,634	
잡수입	76,691	
CMS 이체수수료수입	71,995	
전년도 이월금		

세 출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계	138,143,480	2013 노원 사랑나눔 연합바자회 특별적립금	180,760
		서울메트로와 함께하는 사랑의 등산행사 사업비	327,040
		LG유플러스 후원 오디오북 제작 사업비	2,200,000
		후원회운영사업 현수막 제작비	30,000
		원더풀과 함께하는 가정문화체험 사업비	11,168,140
		2013 중증시각장애인 여름가족캠프 사업비	11,602,340
		재가시각장애인 말반찬보급사업비	344,200
		원더풀과 함께하는 사랑의 김장 나누기 사업비	8,435,024
		이월금	93,081,904
		소식지 제작비	3,907,200
		소식지 발송요금	382,110
		평화방송 지정후원금 지급	4,615,277
		존슨앤드존슨 후원 문화체험	720,290
		경희대학교경영학회 지정기탁 후원물품 구입비	230,000
		2013 노원 사랑나눔 연합바자회 운영비	55,200

### 후원물품

세 입		후원물품내역
항 목	후원물품내역	후원물품내역
전년도 이월 후원물품	쌀 160kg(개인후원자)	유아동도서 100권(개인후원자)
	재래시장상품권 만원권 45장(SC제일은행)	잡화 6개(성주재단)
	의류 128벌(더디다)	치과치료(재능기부)뉴욕치과의원
후원물품	에어메리 40벌(서울메트로)	

세 출	
후원물품사용내역	후원물품사용내역
저소득 시각장애인 12명 전달	저소득 시각장애인 2가정 전달
저소득 시각장애인 6명 전달	노원 사랑나눔 연합바자회 사용
노원 사랑나눔 연합바자회 사용	노원 사랑나눔 연합바자회 사용
저소득 시각장애인 2명 치료	
-	

### 후원안내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은 전국 50만 시각장애인의 복리향상과 권리증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시각 장애인 기관입니다. 후원자님의 정성된 사랑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소중히 쓰일 것이며 후원자님의 후원금은 소득세법 제34조, 법인세법 제18조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지료번호** (7608162)

**계좌번호** (예금주: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 국민은행 835-02-0114-768, 497801-96-200273
- 하나은행 757-810001-08405

- 우리은행 1006-601-227253
- 외환은행 170-22-00710-6